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전한 시장체제 & 사회 안전망 조화 강조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라며 보건복지부가 그리는 정책의 주요 골자를 이처럼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 역시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과제로 ▲사회보장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과 의료비 부담 경감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등을 꼽았다.

그는 먼저 ‘사회보장 강화’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혼자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저출산 주무부처로 컨트롤 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정신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 근간을 닦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56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대학 정치학 석사 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